

觀象監活字考

金 相 溟*

<目 次>

- | | |
|----------|---------|
| 1. 緒 言 | 4. 明時曆字 |
| 2. 大統曆字 | 5. 七政曆字 |
| 3. 內用三書字 | 6. 結 言 |

1. 緒 言

古來로 曆學은 帝王의 學問으로 해마다 백성들에게 하늘의 현상과 사계절의 변화, 농사의 적기 등을 정확히 알려주는 일은 국가적으로 매우 중요한 사업 가운데 하나였다. 우리 나라는 일찌기 中國으로부터 曆法과 曆書를 수입하는 한편, 친문의 관측과 추보를 관장하는 官衙를 설치하고 해당 官員으로 하여금 매년 冊曆을 편찬토록 하였다.

특히 朝鮮朝에는 당시 발달된 活字印刷術에 힘입어 冊曆의 편찬을 관장하던 觀象監이 독자적인 活字를 보유하고 해마다 방대한 양의 冊曆을 印出하였는데, 그러한 活字를 통칭해 觀象監活字라 한다. 그런데 현재 여러 도서관들에 소장되어 있는 印本들을 조사해 본 결과, 이들의 印出에 사용된 活字들이 冊曆의 종류에 따라 각기 다름에도 불구하고, 모두 막연하게 觀象監活字本으로만 기술되어 있어 冊曆들간의 版本 식별이 곤란할 뿐 아니라, 일반 曆書들을 잘못 觀象監活字本이라 정리한 경우도 적지 않았다.

이에 觀象監活字에 대한 보다 명확한 개념의 정립을 위해 現存本과 관계 문헌을 중심으로 당시 어떤 종류의 活字들이 어떻게 사용되었는지 하나하나 밝혀보고자 한다.

* 成大 圖書館學科 博士課程

2. 大統曆字

冊曆이란 天子의 나라에서 만들어 頒賜하는 것으로 藩邦이 사사로이 撰出하지 못하였다. 그러나 우리 나라는 中國과의 지역적 차이로 인해 中國의 冊曆을 그대로 받아 쓸 경우, 時刻과 節候가 잘 맞지 않을 뿐 아니라, 도착하는데도 많은 시간이 소요되어 제때에 頒行할 수 없기 때문에 독자적인 冊曆을 만들어 쓰지 않을 수 없었다.

우리가 冊曆을 만들어 쓴 時期에 대해서 李殷晟은 新羅 文武王 14年(674) 大奈麻 德福이 唐으로부터 麟德曆을 수입해 冊曆을 만들었다고 밝히고 있다.¹⁾ 물론 增補文獻備考의 曆象沿革을 보면 당시 德福이 唐으로부터 曆術을 배우고 돌아와 비로소 그 曆法을 써서 曆을 만들었다는 기록이 전해지고 있다.²⁾ 그러나 三國史記의 文武王 14年條에는 단지 德福이 曆術을 배우고 돌아와 새로운 曆法으로 고쳐 사용했다는 사실만이 수록되어 있어,³⁾ 과연 당시에 새로운 曆法을 도입함과 동시에 독자적인 冊曆을 만들어 썼는지, 또는 그 이전이나 그 이후에 만들어 썼는지는 분명하지 않다.

독자적인 冊曆을 만들어 쓴 보다 확실한 기록은 高麗史節要의 顯宗 21年(1030) 4月條에서 찾아 볼 수 있는데,

「지난해 12월이 송나라 책력에는 큰 달로 되어 있는데도, 우리 나라 태사국이 올린 책력에는 작은 달로 되어 있다.」⁴⁾

라고 한 점으로 미루어 보아 적어도 顯宗 20年(1029)이전에 이미 宋의 冊曆과는 별도로 太史局이 독자적인 冊曆을 편찬하여 進獻하였음을 짐작할 수 있다.

1) 李殷晟, 曆法の 原理分析. 서울, 경음사, 1985. p. 325.

2) 增補文獻備考 卷 1, 象緯考 曆象沿革
「新羅文武王時 大奈麻德福 入唐傳學曆術 還始用其法造曆」

3) 三國史記 卷 7, 新羅本紀 文武王
「大奈麻德福 傳學曆術還改用新曆法」

4) 高麗史節要 卷 3, 顯宗 21年 夏 4月條
「上年十二月 宋曆以爲大盡 而我國太史所進曆以爲小盡」

冊曆이 印刷수단을 통해 간행된 시기에 대해서 尹炳泰는 中國에 木板本인 唐 乾符 4年(877)曆이 전해지고 있고, 이 당시 新羅와 唐 사이의 왕래가 빈번하였던 점을 들어 이미 新羅 때부터 冊曆이 간행되었을 것이라 추정하였다.⁵⁾ 그러한 추정의 사실 여부라든가, 高麗 顯宗年間에 太史局이 올린 冊曆이 印本인지 寫本인지는 당시의 冊曆이 발견되거나 보다 확실한 기록이 나타나기를 기대할 수 밖에 없다.

다만 純祖年間에 成周憲이 엮은 書雲觀志에

「국초에는 진헌 외에 서운관에서 4천권을 인출하여 중앙 및 지방의 관아와 종친, 문부당상관 이상에게 반사하였다……교서관에서는 1천권을 인출하여 여러 책의 인출비용으로 삼았다.」⁶⁾

고 하였으니, 늦어도 朝鮮初에는 이미 大統曆이 印刷수단을 통해 인출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을 뿐이다. 당시 書雲觀과 校書館이 어떠한 방법으로 冊曆을 간행하였는지는 자세하지 않으나, 世祖 7年(1461)에 校書館으로 하여금 冊曆의 인출을 감독토록 함은 不密할 뿐 아니라, 書員·匠人들이 임의로 私印케 되니 심히 不可하다고 하여 다시금 書雲觀에서 관장토록 한 사실⁷⁾로 미루어 보아, 校書館에서의 冊曆간행이 오래 지속되지는 않은 듯하다. 이 때의 冊曆 역시 傳存되고 있지 않아 확실치 않으나, 孫寶基는 世宗 17年(1435) 鑄字所를 景福宮 안으로 옮기고 校書館은 木板을 말도록 한 사실을 들어 두 官衙 모두 木板으로 冊曆을 간행하였다고 단정지었다.⁸⁾

冊曆을 活字로 印出한 사실은 沈守慶의 遺閑雜錄에 자세히 전한다.

「일찌기 주자로 책력을 인출하여 중앙과 지방에 반포하였으나, 임진년 여름에 왜구들이 도성을 함락하게 되어 역기 등이 모두 없어지고 남음이 없었다.……계사년

5) 尹炳泰, 朝鮮朝活字考. 서울, 延世大 圖書館學科, 1976. p. 88.

6) 成周憲, 書雲觀志 卷 2, 式例

「國初進獻外 本觀印四千件 頒諸司諸邑及宗親文武堂上官以上…校書館印一千件 以備諸書印出之資」

7) 世祖實錄 卷 23, 7年辛巳 3月丁未條.

「曆日之法 中朝秘之 多至前不許頒行 今令校書館監印 則非唯不密 書員匠人任意私印 甚爲不可 請依舊例 令書雲觀掌之 從之」

8) 孫寶基, 세종시대의 인쇄출판. 서울, 세종대왕기념사업회, 1986. p. 86.

겨울에 환도하니 인력주자를 습득하여 바치는 자가 있어, 이에 예전 책력을 만든던 대로 인출하여 반포하니 다행이라 하겠다.'⁹⁾

라고 한 점으로 미루어 이미 임진왜란 이전에 大統曆을 간행하기 위한 活字가 鑄造되어 사용되었음을 가름케 한다. 이 活字가 언제 어떻게 鑄造되었는지는 자세하지 않으며, 단지 丙申年(1596) 大統曆<圖 1>에 나타나고 있는 活字의 마멸정도라든가 補字가 간혹 섞여 있는 점으로 미루어 中宗·明宗年間に 鑄造되지 않았나 짐작될 뿐이다.

특히, 大統曆의 單曆과 年神부분의 大字와 中字는 丁酉年(1597) 大統曆<圖 2>과 甲辰年(1604) 大統曆<圖 3>에서 살펴 볼 수 있듯이 임난이후 冊曆에 明나라 年號를 쓰게 되면서 비로소 鑄造되어 사용된 것으로 여겨진다.

이 活字로 찍혀진 印本으로는 安東의 柳氏宗家, 啓明大 圖書館, 國史編纂委員會 등에 소장된 大統曆과 서울大 奎章閣, 高麗大 圖書館 등에 소장된 時憲曆 약간 卷이 있다. 임진왜란 이전의 冊曆은 아직 어느 것도 나타나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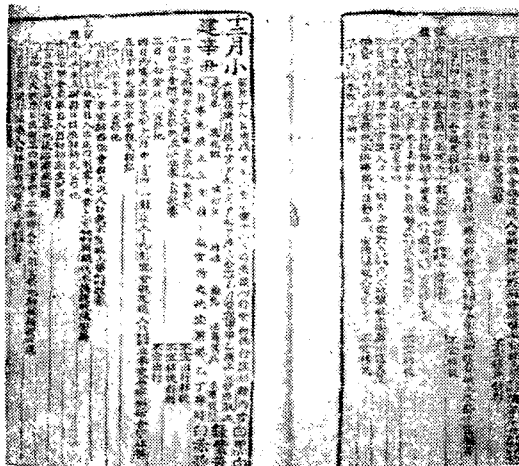


圖 1 丙申年 大統曆

9) 沈守慶, 遺閑雜錄.

「常以鑄字印出 頒行中外 而壬辰夏 倭寇陷都城 曆器等物 蕩失無餘...癸巳冬 車駕還都 有人得印曆鑄字獻之 乃依舊造曆 印出頒行 可謂幸也」.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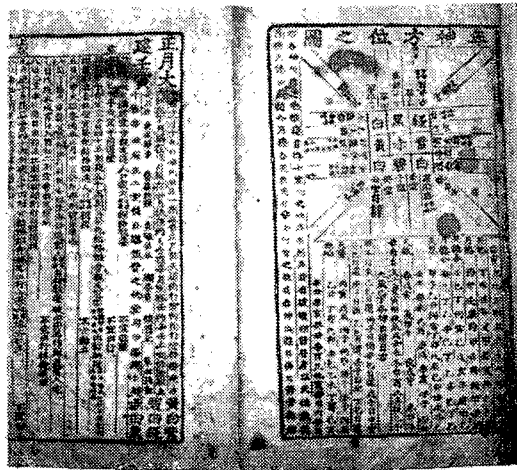


圖 2 丁酉年 大統曆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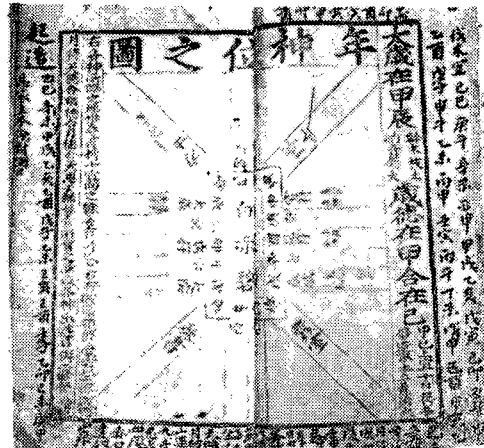


圖 3 甲辰年 大統曆

앞아 現存 最古의 冊曆은 柳氏宗家 소장의 甲午年(1594) 大統曆이다. 종전 에는 이 冊曆이 活字本인 것으로 알려졌으나, 實查해본 결과 版式·字體·

글자의 크기가 비록 活字本과 거의 유사하지만, 活字本에 비해 字行이 반듯하고 字劃이 굵으며, 墨의 濃淡이 순연한 木板本임이 드러났다. 壬辰年 겨울 義州에 隨駕했던 日官들이 七政算·大統曆註 등의 책을 얻어 木板으로 간행한 것¹⁰⁾ 가운데 하나임이 분명하다. 물론 遣閑雜錄에는 癸巳年 大統曆을 刻板印出한 사실만이 적혀 있으나, 印曆鑄字를 얻은 것이 癸巳年 겨울이었기 때문에 甲午年 大統曆은 이미 그전에 木板으로 인출되었던 것이다.

이 活字로 찍은 時憲曆은 景宗 4年(1724)의 甲辰年曆을 끝으로 英祖元年(1725)의 乙巳年 時憲曆부터는 木板으로 간행되었다. 이는 景宗 3年(1723)에 許遠이 淸으로부터 돌아와 欽天監의 冊曆 간행 예에 따라 梨板으로 時憲曆을 간행할 것을 여쭙에 따라 바뀌게 된 것으로,¹¹⁾ 이미 活字가 오랜기간 동안 사용되어 마멸이 심할 뿐 아니라, 몇만부에 달하는 冊曆을 活字로 인출하는 것보다는 木板으로 찍어내는 것이 훨씬 수월하다고 여겼기 때문일 것이다. 실제로 景宗 4年 봄에 시험삼아 梨板으로 方位圖 한 板을 새겨 십여만장을 찍어보아도 板刻이 剋缺되지 않으므로 乙巳年 時憲曆은 鑄字를 쓰지 않고 木板으로 刻印하였다.¹²⁾ 현재 奎章閣에 소장되어 있는 景宗 4年 時憲曆(圖 4)과 英祖元年의 時憲曆(圖 5)을 비교해 보면, 그 차이가 한눈에 드러난다. 그런데도 英祖이후의 時憲曆·時憲書를 잘못 觀象監活字本으로 정리해놓은 도서관이 적지 않아 그 시정이 요구된다.

冊曆을 간행하기 위해 鑄造된 이 活字는 그 活字數가 冊曆에서 관용적으로 쓰이는 용어에 한정되어 있어서 다른 書冊의 印出에 사용된 예는 찾아보기 어렵다. 다만 時憲曆이 木板으로 간행된 이후에도 이 活字는 그대로 남아 있다가 曆註에 해당하는 活字는 훗날 內用三書의 印出시 간혹 補字로서, 日字·干支·24 節氣에 해당하는 活字는 일부 百中曆의 印出시 각각 사용된 듯하다. 따라서 이 活字의 사용시기는 부분적이긴 하나 朝鮮朝末까지 넓게

10) 沈守慶, 前掲書.

「其多 義州隨駕日官數人 偶得七政算大統曆註等書 造癸巳曆 以刻板印出若干卷 頒行」

11) 成周憲, 前掲書 卷 2, 式例

「景宗癸卯 許遠自燕還 啓以日課 依欽天監板本 始自明年 刊用梨板」

12) 承政院日記, 景宗 4年 甲辰 2月 28日 壬申條

· 「先試方位圖一板 印出十餘萬張 板刻不爲剋缺矣 來乙巳日課 不用鑄字 以木板刻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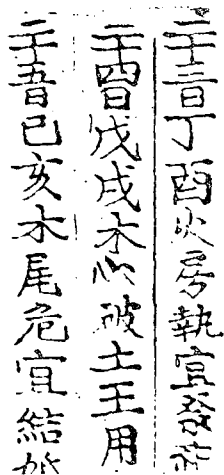


圖 4 景宗 4年 時憲曆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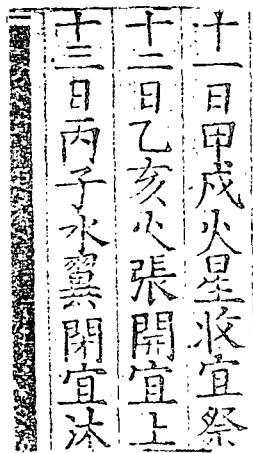


圖 5 英祖元年 時憲曆

보아야 할 것이다.

活存의 재료는 鐵로서¹³⁾ 中國 欽天監 刊印의 大統曆과 字體가 大同小異하다. 活字의 각 글자 크기는 大·中·小 세가지가 있다. 대체로 大字의 크기는 가로 2.3cm 세로 2cm 내외로 卷首題와 年神方位之圖를 찍는 데 사용되었고, 中字는 1.2×1.0cm 내외로 單曆과 年神의 내용을 찍는 데, 小字는 0.7×0.7cm 내외로 紀年과 月曆의 내용을 찍는 데 주로 사용되었다.

이 活字의 주된 특징은 무엇보다 連鑄되었다는 점에 있다. 朴齊家의 北學議에

「저보 가운데 항상 쓰는 용어는 혹 서너자씩 서로 연결해 새기면 단지 몇 사람만으로도 적어내기에 족하다. 강세황이 말하기를 관상감의 책력간행주자도 이 방법을 써서 행한다고 하였다」¹⁴⁾

13) 成周憲, 前掲書 卷 2, 式例
「舊例 日課七政亦用鐵字」

14) 朴齊家, 北學議. 內篇 塘報.

「邸報中恒用句語…或三字四字五六字相連而刻之…只令數人搨之足矣 姜豹菴曰 觀象監刊曆鑄字以此法行之」

라고 하였듯이 冊曆에서는 동일한 용어들이 빈번히 사용되므로 月日·干支·節氣 및 曆註의 단어들을 한꺼번에 鑄造함으로써 植字·印出하는데 드는 시간과 노력을 절약하고자 했다.

본 活字의 명칭은 그간 觀象監活字 또는 印曆鑄字¹⁵⁾ 등으로 불리었다. 그러나 觀象監活字라는 명칭은 서두에서도 언급하였듯이 觀象監이 보유하고 있던 각종 活字들을 통칭하는 것이므로 적절하지 않다. 印曆鑄字란 遺閑雜錄에 근거한 이름으로 본 活字를 지칭하는 가장 오랜 文獻상의 명칭이다. 그런데 간혹 觀象監活字처럼 冊曆을 인출하는데 쓰인 活字라는 뜻으로 넓게 해석되기도 한다.¹⁶⁾ 따라서 임진왜란 이전에 鑄造되어 景宗年間까지 주로 大統曆과 時憲曆의 印出에 사용되었던 본 活字만을 지칭하는 보다 명확한 活字名이 주어져야 한다.

朝鮮時代의 活字名은 대부분 그것이 鑄造된 年度를 의미하는 干支나 官衙名, 印本書名 등을 따서 붙인 것들이다. 본 活字의 경우 정확한 鑄造時期가 확인되지 않아 干支로 命名할 수 없으며, 官衙名인 觀象監만으로는 다른 活字와 식별이 되지 않는다. 印本書名의 경우 孝宗 4年(1653)을 전후로 大統曆과 時憲曆으로 나누어지지만, 본 活字의 鑄造動機가 전적으로 大統曆을 찍기 위한 것이었고, 時憲曆은 大統曆을 이어 간행된데 불과하다. 따라서 본 活字의 명칭은 印本書名을 따서 大統曆字 또는 觀象監大統曆字라 함이 보다 적절할 것으로 여겨진다.

3. 內用三書字

現存本の 조사 결과, 앞에서 언급한 大統曆字와는 별개로 活字의 크기가 약간 더 큰 冊曆刊行活字가 英祖年間부터 사용되었던 것으로 나타난다.

이 活字로 찍은 冊曆은 內用三書(內用三曆)로 內用이란 宮闕 안에서 쓰인다는 뜻이고, 三書란 그 본문에서 살펴 볼 수 있듯이 매일매일의 曆註가 수

15) 千惠鳳, 韓國古印刷史, 서울, 韓國圖書館學硏究會, 1976, p.100.

16) 尹炳泰는 朝鮮朝活字考에서 그 범주에 內用三書 및 七政曆의 刊行活字까지 포함하고 있다.

壬·下 세가지로 나뉘어 적혀 있는 冊曆이란 뜻으로서, 內用三書란 宮中에서 國王과 王室사람들이 보는 별개의 冊曆이라는 의미로 새겨진다. 大統曆과 時憲曆이 보통 15張내지 16張인데 반해 內用三書는 60餘張이 넘어 頒布用으로 보기에는 필요이상으로 내용이 복잡하고 종이의 소비가 많을 뿐만 아니라, 다른 冊曆과 달리 藏書閣(현재 韓國精神文化研究院)에 그 印本이 많이 소장되어 있었다는 점을 보아서도 國王과 王室에 進獻하기 위해 편찬된 것임을 가늠할 수 있다. 曆註의 내용은 上은 君主, 中은 官員, 下는 百姓들에 해당하는 내용이 적혀 있다.

曆註를 이처럼 上·壬·下로 나누어 적은 체제는 刊年未詳의 萬年曆에서 찾아볼 수 있다. 그런데 이 萬年曆이 英祖 8年(1732)李世澄에 의해 淸에서 수입된 사실이 實錄에 나타나고,¹⁷⁾ 現存最古의 印本 또한 英祖年間の 것임을 미루어 볼 때,¹⁸⁾ 內用三書가 처음 편찬된 것은 英祖 8年 이후 英祖 24年(1748) 이전의 일로서 그 간행을 위한 活字 역시 이 때에 비로소 鑄造되



圖 6 英祖 28年 內用三書

17) 英祖實錄 卷 31, 8年 壬子 2月 戊戌條.

「觀象監官員李世澄 質來淸國所改萬年曆」

18) 現存最古의 內用三書는 己巳年 (1748) 三書로 알려졌으나, 不明되어 實査하지 못하였다.

있을 것으로 여겨진다. 英祖 28年(1752)의 內用三書(圖 6)를 살펴보면, 전반적으로 活字의 大小와 字劃의 太細가 고르고 活字의 마멸도 거의 눈에 띄지 않아, 그것의 鑄造時期가 과히 오래지 않음을 짐작케 한다.

時憲曆을 木板으로 새겨 찍기 시작한지 얼마되지 않아 이처럼 새로운 活字를 鑄造한 것은 時憲曆에 비해 面數가 세배이상인 반면, 印出部數는 進獻과 觀象監 主要官員에게 頒賜하는 약간 卷에 그쳐 木板보다 活字印刷가 훨씬 간편할 뿐 아니라, 기존의 大統曆字는 마멸이 심하고 글자의 크기도 작아 열람하기에 불편한 때문이었던 듯 하다.

活字의 재료는 鐵로써¹⁹⁾ 원래 매 10년마다 改鑄토록 하고, 이에 들어가는 物力은 前期에 啓目하여 각기 해당 官衙에서 지불토록 하였다.²⁰⁾ 그러나 그 改鑄時期는 純祖 11年(1811) 戶曹判書 沈象圭가

「철활자는 10년정도에 완제되지 않는데, 단지 기한이 찼다하여 문득 개주하기를 청하는 것은 실로 의미가 없다.²¹⁾

고 啓함에 이르러 그 주기를 15年으로 고치었다. 여기서 말하는 改鑄란 마모가 심한 活字나 散失된 活字들을 改備한다는 의미로서 現存本에서 活字의 전체적인 再鑄의 흔적은 찾아볼 수 없다.

다만 高宗 21年(1884)의 內用三書(圖 7)에서 나타나는 바와 같이 후대로 내려갈수록 補字가 많이 나타나며, 간혹 補字로 大統曆字가 쓰인 듯하다. 그래도 만일 印出 후 글자가 또렷하지 않은 것이 나타나면, 高宗 26年(1889) 內用三書(圖 8)의 五姓修宅 중 “五”字에서 볼 수 있듯이 補劃色으로 하여금 그 위에 붓으로 덧붙여 쓰게 하였다.²²⁾

字體는 大統曆字와 같으나, 大字·中字는 후대로 가면서 차츰 印書體의

19) 成周憲, 前掲書 卷 2, 式例.

「內用三書用鐵字」

20) 上掲書 卷 2, 式例.

「三書所印鑄字 每十年改鑄 所入物力 前期啓目 令各該司上下」

21) 承政院日記 純祖 11年 3月 27日.

「象圭曰…鐵活字之十年之頃 宜不至尅弊 而徒以滿限 輒請改鑄實無義意」

22) 甲寅新定觀象監箕案節目의 「三曆七政補劃色一人」과 三曆廳憲의 「如三曆印考例畢印補劃」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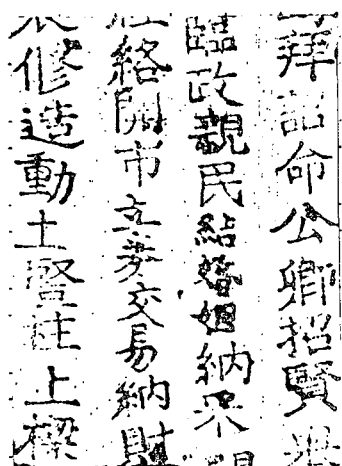


圖 7 高宗 21 年 內用三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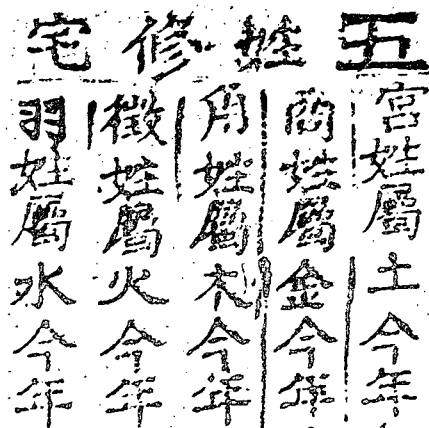


圖 8 高宗 26 年 內用三書

風을 띤다. 글자의 크기에 따른 용례는 大統曆字와 마찬가지로인데, 大字는 2.5×2.4cm 내외, 中字는 1.4×1.1cm 내외, 小字는 0.9×0.7cm 내외로 약간 더 크며, 역시 連鑄되었다.

본 活字의 印本으로는 隆熙 2年(1908)의 內用三曆까지가 전해지고 있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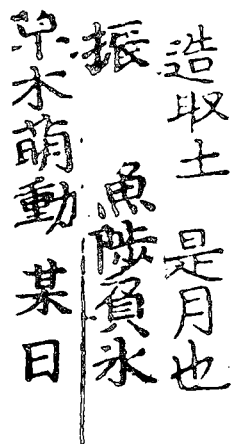


圖 9 大統曆註

英祖年間に鑄造된 이래 약 160餘年동안 사용되어왔음을 가늠할 수 있다. 일반 書冊의 印出에 쓰인 예는 발견하지 못하였으며, 단지 曆書인 大統曆註 <圖 9>에 그것이 부분적으로 쓰인 것을 보았을 뿐이다. 이는 大統曆字와 마찬가지로 活字數가 內用三書의 印出에 필요한 글자에만 한정되었기 때문일 것이다.

본 活字의 명칭은 그간 大統曆字와 아무런 구분없이 觀象監活字 또는 印曆鑄字 등으로 불리었다. 따라서 大統曆字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보다 적절한 명칭이 필요하며, 印本書名을 따서 內用三書字 또는 觀象監內用三書字라 이름할 수 있겠다.

4. 明時曆字

明時曆은 大韓帝國 수립 직후인 光武元年(1897) 11월에 기존의 時憲曆을 고쳐 부른 이름으로²³⁾ 光武 2年(1898)부터 隆熙 2年(1908)曆까지 간행되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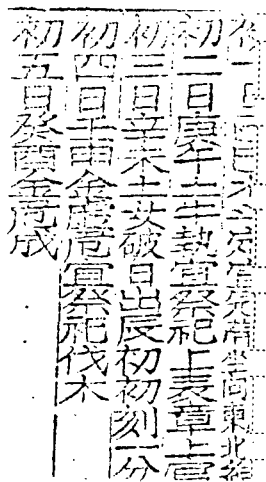


圖 10 光武 10年 明時曆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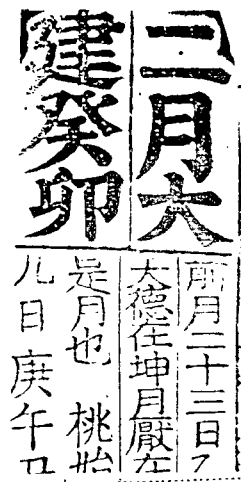


圖 11 光武 11年 明時曆

23) 增補文獻備考 卷 1, 象緯考.

「光武元年十一月…改定時憲曆名 議政沈舜澤 議列明時一元二名以進 詔以明時定名 頒下中外」

다. 그런데 이 明時曆은 建陽 2年(1897) 時憲曆에 이어 光武 10年(1906)의 明時曆〈圖 10〉까지는 木板으로 간행되었으나, 光武 11年(1907) 明時曆〈圖 11〉과 隆熙 2年 明時曆은 活字로 印出된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尹炳泰는 그 재료가 鉛 또는 亞鉛일 것이라 추정하였다.²⁴⁾

字體는 木板으로 간행된 明時曆과 마찬가지로 印書體이며, 大字는 2.8×2.7cm 내외, 中字는 1.3×1.2cm 내외, 小字는 0.7×0.5cm 내외이다. 이 活字 역시 大統曆字·內用三書字와 마찬가지로 連鑄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 印本으로는 1907年·1908年의 明時曆뿐이다. 이는 隆熙元年(1907) 12月 學部の 官制改編에 따라 觀象所가 폐지되고 대신 編輯局이 冊曆의 간행을 관장하면서,²⁵⁾ 기존의 明時曆과 大韓曆을 한데 묶어 隆熙 3年(1909) 曆부터는 石版으로 印出하였기 때문에 더 이상 사용되지 않은 듯하다.

이 活字 역시 大統曆字·內用三書字와 마찬가지로 印本書名을 따서 明時曆字 또는 觀象所明時曆字라 함이 可할 것이다.

5. 七政曆字

大統曆이나 時憲曆·明時曆·內用三書 등의 日課와 함께 해마다 日·月·五星의 運行을 가리키는 七政曆이 鮮初부터 이미 편찬·간행되었다. 七政曆의 간행 사실은 世祖 12年(1466)에

「관상감 제조가 여쭙기를 중국에서는 칠정력을 매년 인출하나, 우리 나라에서는 진상할 1건이에는 인출하지 않아 별의 경로를 상고할 때 참고의 근거가 없다하고, 지금부터는 전교서로 하여금 2건을 인출하여 1건은 진상하고 1건은 관상감에서 소장케 할 것을 청하니, 이에 따랐다.」²⁶⁾

고 하여 그 일편을 엮을 수 있다. 당시 七政曆의 印出이 한두件에 지나지

24) 尹炳泰, 前掲書. p. 168.

25) 舊韓國官報 3952號 號外. 隆熙元年 12月 18日 勅令 第54號「學部官制」참조.

26) 世祖實錄 卷 40, 12年 丙戌 10月 己未條.

「觀象監提調啓 七政曆中朝每年印之 本國則進上一件外不印出 星經相考時 憑考無據 請自今令 典校署印二件 一件進上 一件藏于本監 從之」

않은 것으로 보아서는 木板이 아닌 活字로 印出된 듯하다. 書雲觀志에

「예전에는 일과와 칠정력 역시 鋳활자를 썼다. 경술년 이후 칠정력 또한 유자나무판으로 간행되었다. 배나무판은 2년마다 유자나무판은 매년 호조에서 지급한다.」²⁷⁾

는 기록이 있어 英祖 6年(1730) 이전까지는 鐵活字로 그 이후부터는 木板으로 印出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鐵活字의 경우 그것이 어떠한 活字였는지는 英祖朝이전의 印本이 나타나야만 밝혀질 것이다.

現存本 가운데 간행시기가 비교적 오랜 것은 純祖年間の 것이다. 그런데 이후의 印本을 조사해 본 결과, 高宗 1年(1864)까지의 七政曆과 同王 25年(1888) 및 27年(1890) 七政曆은 <圖 12>와 같이 木板本인 반면, 同王 4年(1867)과 7年(1870)의 것은 <圖 13>에서 보는 바와 같이 字劃이 매우 가는 鑄字本이고, 同王 32年(1895) 七政曆<圖 14>은 活字의 大小와 太細가 고르지 않은 조잡한 木活字本임이 드러났다.

두가지 鑄字本의 경우 그 印出상태가 대체로 양호하고, 高宗年間に 편찬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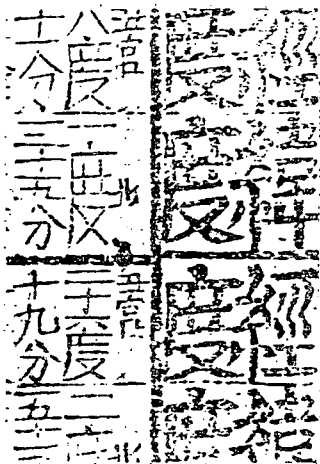


圖 12 高宗 1年 七政曆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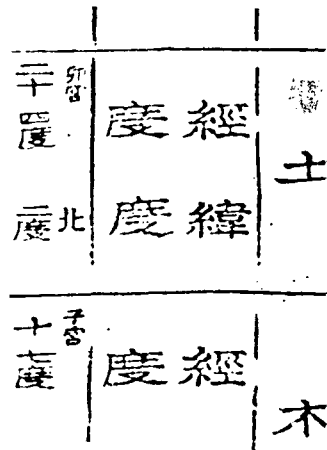


圖 13 高宗 4年 七政曆

27) 成周憲, 前掲書 卷 2, 式例.

「舊例 日課七政亦用鐵字…越庚戌七政亦以椶板刊行 梨板年 椶板每年 自戶曹上下」



圖 14 高宗 32年 七政曆

六典條例에

「칠정력 역시 칠주자로 인출한다.」²⁸⁾

라고 규정되어 있는 점으로 보아 哲宗·高宗年間に 新鑄된 鐵活字로 간행된 것임을 가름케 한다.

글자의 크기는 전반적으로 앞의 세가지 活字보다 훨씬 작은 大字 1.6cm×1.0cm 내외, 中字 0.9×0.5cm 내외, 小字 0.5×0.3cm 내외이며, 두서너字씩 한꺼번에 連鑄되었다.

木活字本은 이전의 木板本을 바탕으로 생긴듯 字體와 크기가 大同小異하다. 大字는 2.5×1.7cm, 中字는 1.2×0.8cm, 小字는 0.5×0.4cm에서 0.6×0.8cm 내외로 역시 連刻된듯 하다.

이들 鐵 또는 木活字가 이때에 이르러 다시 鑄造·雕造된 이유와 정확한 사용시기는 관계기록과 당시의 印本이 더 나타나야만 밝혀질 수 있겠다.

本 活字 역시 그동안 觀象監活字 또는 印曆鑄字로 불리었으나, 印本書名

28) 六典條例 卷 6.

「七政曆亦以鐵鑄字開印」

과 그 재료에 따라 七政曆鐵活字·七政曆木活字로命名할 수 있겠다.

6. 結 言

朝鮮時代에는 각종 冊曆의 난립으로 야기되는 사회적 혼란을 막고, 국가적으로 하나의 통일된 冊曆이 유통될 수 있도록 사사로이 造曆하는 자를 엄히 다스리는 한편, 觀象監으로 하여금 木板이나 活字印刷수단을 빌어 冊曆을 간행토록 하였다. 당시 冊曆의 간행에 사용된 觀象監活字들을 現存本과 관계문헌을 통해 살펴본 결과, 冊曆의 종류와 時代에 따라 鑄造·雕造 및 使用時期와 字樣이 전혀 다른 네가지이상의 活字들이 사용되었음이 확인되었으며, 活字간의 식별을 위해 印本の 書名을 따서 大統曆字, 內用三書字, 明時曆字, 七政曆鐵(木)活字라 이름하여 보았다.

그러나 각 活字의 정확한 鑄造時期 등 아직까지 밝혀지지 않은 부분 또한 적지 않다. 이는 무엇보다도 冊曆이란 한해동안 이용하고 나면 일반 書冊과 달리 자료로서의 보존가치가 적어 대부분 즉시 폐기되어 버렸기 때문에, 방대했던 印出量에도 불구하고 오늘날까지 傳存되고 있는 冊曆이 매우 적다는데 그 어려움이 있다.

따라서 앞으로 새로운 印本들이 발견되는대로 그러한 문제들은 해결되어 지리라 믿으며, 후속 연구를 통해 계속 수정·보완되기를 기대한다.

參 考 文 獻

- 甲寅新定觀象監貫案節目
- 高麗史節要
- 三國史記
- 三曆廳憲
- 承政院日記
- 六典條例
- 朝鮮王朝實錄

增補文獻備考

舊韓國官報 影印本. 서울, 亞細亞文化社, 1973.

朴齊家, 北學議

成周憲, 書雲觀志

沈守慶, 遺閑雜錄

孫寶基, 세종시대의 인쇄출판. 서울, 세종대 왕기념사업회, 1986.

尹炳泰, 朝鮮朝活字考. 서울, 延世大圖書館學科, 1976.

李殷晟, 曆法の 原理分析. 서울, 정음사, 1985.

千惠鳳, 韓國古印刷史. 서울, 韓國圖書館研究會, 1976.

A Study on Kwansanggam Type

Kim, Sang Ho

Abstract

The Yi-Dynasty published the calendars printed by means of woodblock and typeprinting for the purpose of informing its people of four seasonal changes and appropriate time for farming.

The printing types were used to publish the calendars in those days varied depending upon the kinds of the calendars, but all those types are known as only one name: Kwansanggam Type.

This is because there have been little studies on the different kinds of printing types. As a result, there are many cases where the libraries make erroneous notes in their catalogues.

This study points up the fact that four different kinds of Kwansanggam Type were used depending upon the nature of the calendars. For classification purpose, I call these types Daetongryökja, Naeyongsamsöja, Myöngsiryökja, and Chiljöngryökja.

What has not been revealed in this study can be further explained as the more calendars of those days are found out.